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0810-중-23710호 광고

치료 전

치료 3개월 후

손, 발 질환치료 왜 중요할까?

발가락질환 「무지외반증」 주의!

미니금속나사 교정 절골술로 치료가능
초기에 치료하면 치료만족도 높아

발가락 때문에 고민인 여성들이 많다. 복희나 맘에 드는 신발도 신을 수 없는 휘어진 발가락은 또다른 콤플렉스가 되고 있다. 신발도 문제지만 엄지발가락 뼈 있는 부분이 아픈 것은 더 문제다.

이처럼 무지외반증 치료를 미루다가 엄지발가락 부분에 뼈가 튀어나와 신발을 신어도 아프고, 걸을 때도 아파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병명은 무지외반증이라 부른다.

무지외반증의 증상은 계속 아픈것은 아니지만 가끔가다 쑤실때는 무척 아플 수 있다. 날씨가 따뜻할 때는 괜찮다가도, 추워지면 더욱 쑤시고 아프다. 오래 걸으면 발부터 허리까지 통증이 욱신거리기도 한다. 이러한 무지외반증도 수술하면 톡 튀어나온 부분 및 쑤시고 아픈 통증도 치료 가능하다.

여성들에게 발병 빈도 높아

오랜기간 하이힐이나 앞이 뾰족한 구두를 신는 여성들의 체중이 엄지발가락에 집중되어 발가락에 변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무지외반증은 높은 빈도로 발병하고 있다.

무지외반증은 정상적인 발의 보행이 힘들면서 무릎과 허리에도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그럼에도 발가락의 작은 부분이라 하여 질병이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냥 체념한 채로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로 인해 무릎과 허리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겨 고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부산에서도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치료 가능해

부산에서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등의 발질환을 주로 치료하는 대한민국 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엄지발가락은 인체에서 일종의 버팀목이자 지렛대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은 물론이고, 거동에 부자연스럽고 불편해지면서 자세도 비뚤어져 신체 여러부분에 질환을 앓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엄지발가락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이동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신체부위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걷기에 있어 조그만 변화나 무리가 있으면 우리의 발은 신체에 즉각적인 이상 신호를 보내게 된다. 엄지발가락이 휘었다고 부르는 무지외반증 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으면서도 치료를 미루다 고질만 키우는 대표적인 엄지발가락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멀리 가지 않더라도 부산에서도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등의 발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미니금속나사를 이용한 무지외반증 치료

상태가 심하지 않다면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교정깔창을 사용해 통증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변형된 정도나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의 무지외반증의 치료는 〈미니금속나사 교정 절골술〉을 시행한다. 부산 당감동에 위치한 대한민국 정형외과 의원도 이 수술을 시행하는데 수술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엄지발가락 하단부위인 제1중족골 부위 한 곳을 절골해 엄지발가락의 위치를 바로잡는다. 이 때 뼈를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미니금속나사가 사용되는 것이다.

수술 부위에 맞는 미니금속나사를 선택해 부착하고 위치를 잡아주는 수술을 시행한다. 미니금속나사의길이는 약 1.8cm 이내로 짧다.

이준호 원장은 "미니금속나사는 부작용이 적고, 제거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며 "수술 후 미니금속나사를 제거 할 필요가 없어서 2차수술이 굳이 필요없어 환자들이 선호하는 편"이라고 설명한다.

시술 시 주의할 점은 간혹 시술 후 부종이나 동통 부정유합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준호 원장은 돌출한 뼈를 제거하는 '건막류 절골술', 중족골(발등뼈)의 변형을 교정하는 시술, 발가락뼈를 교정하는 시술, 늘어난 관절낭을 탄탄하게 만드는 관절낭성형술 등 네가지 수술을 복합적으로 시행하여 재발을 적정도 적다. 수술은 부위마취로 이루어진다.

수술 후 회복되면 목발 없이 걸을 수 있다. 재활치료 및 회복이 빠르면서도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환자들의 부담도 덜었다.

이준호 원장은 "무지외반증이나 내향성 족지발톱은 엄지발가락에 가해지는 고통도 크지만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몸이 스스로 자세를 변형시키면서 균형을 흐트러서 생기는 합병증도 주의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는 교정이나 수술을 통해 비교적 어렵지 않게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을 참기보다는 진단과 치료를 받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부산 대한민국 정형외과의원
문의 T 051)897-7582

※대한민국정형외과의원 홈페이지(www.대한민국정형외과.kr)를 통해 무지외반증, 지간신경종 이외에도 다양한 손과 발질환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오랜 경험과 수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손질환과 발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효과적인 치료와 빠른 회복을 위해 수부클리닉과 족부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 고운손과 편안한발을 위한 치료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길 모르는 정글미녀 전혜빈

metro
메트로 2012년 11월 29일 목요일 제2620호 www.metroseoul.co.kr

니콜 구하라 닭살애정 대결

그녀의 현찰은 상품권·포인트!

불황영향 현금 내지 않고 공짜 혜택 챙기려는 발길 북적
서랍 뒤져 찾은 구두티켓·주유권·상품권으로 결제…
"올해 안쓰면 다 날아간다" 두툼한 포인트카드 뭉치들고
간장녀들 면발 알뜰쇼핑…
"아차 시골부모님 마일리지도 챙겨드려야죠"

"싹싹 긁어모은 포인트로 결제해주세요. 내 돈은 소중하니까요."

흩어져 있던 멤버십 카드와 장롱 속 상품권이 요즘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최대한 현금 지출을 아끼려는 소비자들이 계산대에서 포인트·상품권 결제를 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AK플라자는 올 초부터 25일까지 고객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한 결과 상품권 회수율이 지난해보다 15% 높아졌다고 밝혔다. 멤버십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 또한 지난해보다 10% 늘었다. 백화점 관계자는 "불황이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이 상품권이나 멤버십 포인트를 더 꼼꼼하게 챙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젊은층들어 마일리지에 특히 관심이 높아 현대백화점이 20~35세 고객을 대상으로 내놓고 있는 마일리지 전용 카드인 'U카드' 가입자는 월평균 25%씩 불어나는 중이다.

점심시간이면 각종 포인트 카드를 꽂아둔 카드지갑을 갖고 다니며 할인 혜택을 챙기는 직장인 허지연(27)씨는 매년 연말때쯤 카드 정리 시간을 갖는다. 연말에 일부 포인트가 소멸되는 탓이다. 그에게 포인트는 쓰지 않으면 아까워서 참을 수 없는 '습관'이다. 허씨는 "요즘 우스갯소리로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들 하지만, 소소한 것부터 챙기면 더 큰 티끌을 만들 수 있고 그게 모이면 태산이 되는 게 아니냐"고 말한다.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만큼 든든한 혜택을 안겨준다. 우선 포인트의 유효기간부터 따지본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는 연간 사용률이 40%대로 절반도 못 쓴 채 증발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2월 31일 자정을 기해 포인트 잔여분을 소멸시키고 매년 1월 1일 다시 멤버십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KT는 가입자가 멤버십에 등록한 날로부터 2년간 포인트를 유지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삭제한다.

주부 김민영(33)씨는 "부모님은 멤버십에 있는지도 모르고 포인트를 다 날리고 계셔 대신 챙겨드릴 계획"이라며 "청구서에 찍힌 마일리지도 요금 결제로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통신 3사의 마일리지 사용 비율은 KT 7.7%, SK텔레콤 6%, LG유플러스 0.6%에 그치고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도 한 해 1000억원 이상 공중으로 사라지고 있다. 5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데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포인트통합조회사이트(www.cardpoint.or.kr)에서 알아볼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카드사별로 주유소, 음식점,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편의점 등에서 두루 사용할 수 있고 필요시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도 있다. 다음달 14일부터는 자동차세와 주민세, 재산세 등 세금 납부도 포인트로 가능해진다.

/전효순기자 hsjeon@metroseoul.co.kr

가스총 찬 지하철 보안관 28일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서 지하철 보안관들이 가스총을 휴대하고 순찰활동을 하고 있다. 하루 평균 61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묻지마 흉기 난동 등에 신속히 초동 대처하기 위해 서울지하철 1~8호선 277개 역사에 권역별 가스분사기 565정이 비치된다. /연합뉴스

휴대폰이 단돈 8만원

세븐일레븐 오늘부터 '알뜰폰' 직접판매 시작

8만원대 초저가 알뜰폰이 편의점에서 판매된다.

세븐일레븐은 29일부터 이동전화업체인 프리피아, SK텔링크와 협력해 알뜰폰 '세컨드'(사진)를 선보인다.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알뜰폰 판매에 뛰어든 것은 처음이다.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 저렴한 통신요금에 제공하는 휴대전화를 말한다. '세컨드'의 경우 편의점을 통해 유통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편의점폰'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미리 요금을 충전한 후 사용하는 선불형 휴대전화로 사용자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와 라디오, MP3, 카메라 기능 등이 있으며 블루투스를 통해 기존 휴대전화에서 주소록을 옮길 수도 있다.

더불어 유심 슬롯을 2개로 구성해 해외에 나가서도 현지 전화번호와 한국에서 쓰던 전화번호를 한 대의 단말기로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은 8만4900원이다. 20~30만원대인 국내 피처폰 가격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세컨드'는 프리피아 온라인 쇼핑몰(prepiamall.co.kr)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박상준기자 zen@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 지긋지긋

메트로신문·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예방 공동기획 | 자율적 안전관리 시스템

1 올해 7월 경기 수원의 한 빌라 지붕 보수공사 현장. 지붕 끝에 올라 슬레이트 교체 작업을 하던 박모(46)씨가 4.6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날 오전 내린 비로 미끄러운 지붕 위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작업을 한 전형적 안전 불감증이 화를 불렀다.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해야 하며 사업주는 안전대와 안전난간,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현장에는 어떤 안전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2 지난 8월 인천시내 한 타이어 제조 사업장에서 근로자 2명이 타이어 파쇄기에 팔이 끼였다. 타이어를 분쇄하는 작업에 투입된 이들은 작업 중 타이어 파쇄기 고장으로 타이어가 기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이를 빼내려다 사고를 당했다. 기계를 정비하거나 점검 또는 청소할 때 반드시 운전정지 상태에서 실시해야 하지만 시간을 아끼려 무리하게 작동 중인 상태에서 문제 처리에 나선 것이 화근이 됐다.

지난 9월 말 경기 파주에서 공사 중인 다리 상판이 무너져 콘크리트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다리 아래로 추락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현장. 경찰 관계자들이 건설현장에서 현장 검증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규제 벗어나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 제거하려는 노력 서둘러야

전국 일터의 산재 피해가 여전히 심각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자 수는 모두 9만3292명, 이 중 2114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평균 256명이 다치고 6명이 사망한 셈이다.

지난해 산재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18조원으로 교통사고의 1.4배, 자연재해의 15배 수준에 이른다. 산재에 따른 근로손실일수 측면에서 보면 근로자가 무려 5477만 일이나 일하지 못해 노사분규에 따른 근로손실일수 43만 일보다 128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 규제 위주의 산재 예방에서 벗어나 사업장 자율관리(단, 자율적 관리가 어려운 경우 정부 규제)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보다 효율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연구원은 "안전보건의 책임이 있는 주체들이 리스크 관리를 스스로 하는 것이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재가 빈발하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전국에 143만 곳,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은 26만 곳에 달한다.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 재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자체적으로 산재예방을 하려고 하는 사업,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는 물론 업종별 직능단체, 안전보건 관련 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의 모든 주체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illegible]기자

내년 후반기부터 수도권 집값 회복세 전망

집을 팔고 싶은 사람들은 내년도 기대를 접어야 할 듯하다. 전세를 구하려는 이들은 그나마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28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내년 수도권 집값의 하락세가 주춤하고 전국적으로 급등한 전세 가격은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2013년 주택 가격은 전국적으로 약세를 보이겠지만 수도권은 하반기 이후 회복세로 전환할 전망이다. 그러나 하락폭이 감소할 뿐 가계부채가 증가해 구매력이 낮아지고 구매심리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입주 물량이 많고 공급 대기 물량도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반면 올해 급등했던 전세 가격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전세 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올라 연간 1.8% 상승할 전망이지만 지방은 세종시, 혁신도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떨어질 전망이다.

세종시는 2014년 말까지 36개 행정기관이, 10개 혁신도시에는 114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앞두고 있어 해당 지역의 매매·전세가는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김지섭기자 lazyhand@

잘나왔네 28일 서울 숭의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담임교사로부터 수능 성적표를 받고 점수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78> 글·그림 박상철

<5년새 연평균 15.4% 증가>

사마귀 환자 급증 절반이 20대 미만

자기 몸에 난 사마귀 만져도 추가 감염 우려

면역력이 떨어지는 소아·청소년이 늘면서 20대 미만 사마귀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바이러스 사마귀 진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마귀 환자가 16만5000명에서 29만4000명으로 연평균 15.4%씩 늘었다. 진료비 역시 같은 기간 94억원에서 257억원으로 연평균 28.9%씩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지난해 기준 10대가 32.8%로 가장 많았고, 0~9세 20.7%, 20대 17.0% 순으로 20대 미만이 53.5%나 차지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사마귀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생긴다"면서 "소아·청소년들의 면역력이 과거에 비해 떨어졌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또 "자기 몸 사마귀를 만져도 추가 감염 우려가 있다"면서 "치료를 받으며 사마귀 접촉을 최대한 피하라"고 당부했다.

/정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금융사는 고객에 떠넘긴 근저당권 설정비 돌려줘라" 법원 첫 판결

집단소송 1조로 커졌다

추가 소송참여자 크게 늘듯

최근 금융사를 상대로 한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에서 금융소비자가 승소하면서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모두 승소하게 되면 최소 3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이 넘는 돈을 금융사가 배상하게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금융소비자연맹은 "고객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를 금융사가 반환하라는 판결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결과"라며 추가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금소연은 지금까지 5차례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참여자는 1만여 명, 반환 청구금액은 200억원에 이른다.

근저당권 설정비는 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으로 등록세, 교육세, 신청 수수료 등을 의미한다. 통상 1억원을 대출받을 때 70만원 안팎이 발생한다.

앞서 2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모(65)씨가 "대출 시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과 이자 70만여 원을 돌려달라"며 경기도의 한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에게 68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근저당권 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하면 통상 대출 금리 인하 등 혜택이 있으므로 설정비 부담은 고객 선택사항이라며 반발해왔다. 은행연합회는 부천지원 판결과 관련해 "고객이 설정비를 부담하고도 금리 차이가 없었던 예외적 사례에 대한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지선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명량대첩때 사용 추정 총통 발굴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1597년 명량대첩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소승자총통(小小勝字銃筒) 3점이 전남 진도 오류리 해저에서 발굴돼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공개되고 있다. 이 해역에서는 기린향 오리향 향로투경 등 최상급 고려청자도 함께 발굴됐다. /연합뉴스

다음달 3일부터 건물 난방온도 20도 이하 제한

다음달 3일부터 건물 난방온도가 20도 이하로 제한된다.

지식경제부는 안정적인 겨울철 전력 수급을 위해 내년 2월 22일까지 에너지 사용을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계약 전력이 100㎾ 이상 3000㎾ 미만인 전기 다소비 건물 6만5000여 곳과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 476곳은 난방 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 1만9000곳은 난방온도가 18도 이하로 제한된다.

지식경제부는 내년 1월 7일부터 위반 건물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장윤희기자 unique@

서울 주유소 20% 휘발유 1800원대 28일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유소 612곳 가운데 125곳(20.4%)이 1800원대에 휘발유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날 오후 한 주유소에서 손님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유車에 휘발유' 혼유사고 급증

대부분 수리비 200만원 넘어

경유 차에 휘발유를 넣어 엔진이 망가지는 혼유 사고가 매년 늘고 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는 혼유 사고 상담 건수는 2009년부터 이달 12일까지 408건이었다. 연도별 상담 건수는 2009년 55건에서 2010년 103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에는 119건, 올해는 이달 12일까지 13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상담 내용을 분석해보니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247건(60.5%)으로 가장 많았고 RV 차량 142건(34.8%), 승합·화물자량 19건(4.7%) 순이었다. 승용차의 경우 프라이드(59건), RV 차량은 싼타페(30건)의 피해가 가장 많았다.

상담자의 77.7%(317건)는 주유소 직원에게 경유를 넣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경유 차량임을 밝혔는데 피해를 본 사례도 22.3%(91건)에 달했다.

연료를 잘못 넣으면 수리비로 수백만원이 들어갔다. 상담 건수 가운데 수리비가 200만원 이상 들어간 경우가 60.1%(245건)나 됐다.

/박선옥기자 pso@

통신요금 환급금 조회 위장한 악성코드 확산

"고객님! 이번달 사용내역입니다." 이런 문자메시지가 왔다면 바로 지우는 게 상책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통신요금 과다청구 환급금 조회, 요금 청구서 등의 내용으로 위장한 채 악성코드를 은닉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유포되고 있다며 이런 문자를 수신하면 바로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이들 문자메시지는 스마트청구서, e-청구서 형태로 발송돼 사용자들이 실수로 클릭할 가능성이 크다. 문자메시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되며 감염된 스마트폰의 전화번호와 통신사 정보, 결제 정보 등이 지정된 IP(인터넷 프로토콜)로 전송된다.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폰키퍼' 등 휴대전화용 보안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박선옥기자

대선 부산 부재자 신고 7만2871명

지역 선거인수 2.5%…내달 10일까지 투표용지 우편발송

부산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의 부산지역 부재자 신고인이 7만2871명(남 5만7761명, 여 1만5110명)으로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부재자 신고인은 부산의 선거인 수 291만939명의 2.5%에 해당하며 2002년 16대 대선(7만91명), 2007년 17대 대선(5만6161명) 및 올해 4월 총선(5만8015명)보다 늘었다.

부재자 신고인에게는 다음달 10일까지 부재자 투표용지가 우편 발송되며 부재자 투표자는 다음달 13일과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에는 선관위에서 발송한 투표용지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된다.

투표지는 다음달 19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선상 부재자 투표는 다음달 11일부터 14일까지 선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실시, 선관위에서 팩스로 보낸 투표용지에 투표를 하고 다시 선관위로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한편 선거인 명부의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 중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자료나 구·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선거인 명부는 다음달 10일 최종 확정된다.

/김수정기자 ksm@metrobusan.co.kr

하늘공원 장례서비스 시운전 원스톱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부산 하늘공원이 시운전에 들어갔다. 사진은 최근 준공된 승화원 전경. /부산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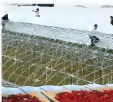
옥상농원 시범마을 보고회

부산 도심의 잿빛 옥상이 유기농 채소와 꽃이 피는 옥상농원으로 변신했다.

시는 올해 도시옥상농원 최우수 마을로 선정된 서구 암남동 소재 송림아이원 아파트 101동 옥상농원에서 29일 '도시옥상농원 시범마을 평가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시범마을 주민대표,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옥상농원 조성 과정 및 평가 결과 설명, 참여 수기 발표, 시범마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최우수 시범마을 견학, 옥상농원 발전 방안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부산시는 옥상농원 시범마을 조성을 위해 지난 7월 도시농업육성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8월부터 10월 말까지 시비 1억원과 자부담 2500만원으로 옥상농원 시범마을 13곳 271가구에 옥상농원을 조성했다.

분주한 겨울채비 28일 경남 김해시 부원동 농촌 들녘에서 농민들이 하우스 철골에 비닐을 씌우며 겨울채비에 분주하다. /연합뉴스

시정 발전 창의 아이디어 '반짝' 박성출·변종태 주무관 특진

부산시는 28일 올해 하반기 우수 제안공무원 동상에 상수도사업본부 박성출 주무관과 변종태 주무관을 선정, 발표했다.

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공무원 제안'을 연중 접수해 상·하반기에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자를 선정, 시상하고 '동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특별 승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총 43건의 공무원 제안이 접수돼 1차로 주관 부서 심사를 통과한 6건을 대상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실무심사위원회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2건이 선정됐다.

박성출 주무관은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수도계량기 현장성능검사 방법 개선'을 제안해 '동상'을 수상, 특별승진의 영예를 안았다. 또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사업소에 근무하는 변종태 주무관은 '정수장 슬러지 악취 제거를 위한 저유조 탈취제 사용방법 개선'을 제안해 '동상'을 받았다.

/뉴시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진편집인 김종직
부산지사장 겸 대표 김철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659-2100
독자센터 02)721-9862

DIY목공예·SNS 활용 … 뭘 배울까

1기 문화교실 수강생 모집

부산시 여성문화회관은 2013년도 첫 번째 문화교실 정규반과 야간 특강반 수강생을 다음달 5일부터 10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접수 모집한다.

이번 제1기 문화교실은 전통예술, 어학, 요리, 현대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81개 반 2229명을 모집하며 2013년 1월 2일에 개강하여 3개월간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1기 문화교실에는 뷰티메이크업, 슈가크래프트, DIY 목공예, SNS 이해와 활용 등 시대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특강반을 다수 개설하여 시민들의 강좌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일반인은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다음달 5일부터 10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단 한글 맞춤법과 어휘 이해, 한글 문장과 문법 이해, 초등 주말반, 방학 특강반은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선착순으로 방문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수강료는 여성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결제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문의 051)320-8331~7

최강의 소방관 양성 본격화

부산소방학교 본관동 오늘 준공식 …전문 교육훈련시설 갖춰

부산소방학교의 조성 공사가 마무리됐다.

부산소방학교는 본관동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9일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북구 금곡동에 위치한 부산소방학교는 2010년 9월 국제공인 특수수난구조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국제수상구조훈련센터 준공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 실제화재훈련장 및 소방전술관을 준공한 데 이어 본관동 공사를 마무리했다.

부산소방학교 본관동은 총 사업비 68억원을 들여 지상 4층, 지하 2층, 연면적 3894㎡ 규모로 지어졌다. 이곳은 국제응급구조교육센터, 대·중 강의실, 강당, 전산실습실, 다목적회의실, 전자도서실, 교육기자재실 등 전문 교육훈련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지상 1층 국제응급구조교육센터는 시민을 위한 '기본 응급구조교육실'과 소방공무원 등을 위한 '전문 종합 응급구조교육실'로 구성됐다. 기본 응급구조교육실은 시민이 스스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자율교육시스템을 완비할 예정이며, 전문 응급구조교육실에서는 소방공무원 및 응급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내·외과 처치 교육이 진행될 계획이다.

종합 응급구조교육실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설치되는 것으로, 구급차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 환자를 구조하는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화 할 예정이다. 또 구급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교통신호, 도로의 높낮이, 장애물 등 세밀한 부분까지 구현, 현장 적응력을 높이게 된다. 특히 하나의 시설이 기본·전문 종합 응급구조교육실을 모두 갖추는 것은 국제응급구조교육센터가 전국 최초다.

현재 부산소방학교는 전문·특별·일반·신임 등 37개 과정을 운영 중이다. 또 화재진화시 인명구조시 응급구조사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김수미기자 ksm@metrobusan.co.kr

대한제국 도서 한자리에 한국고서연구회가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28일 오후 종로구 인사동 회봉갤러리에서 '대한제국 도서전'을 개최했다. 유길준의 친필 서간이 있는 '서유견문' 등 구한말과 대한제국 시절 출간된 도서 223종을 볼 수 있는 이번 도서전은 다음달 4일까지 열린다. /뉴시스

국가 결핵관리 사업 해운대백병원 '우수'

해운대백병원은 '2012년 민간·공공협력 국가결핵관리사업'에서 부산권역 우수병원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5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주관하고 질병관리본부의 후원으로 서울 롯데호텔월드 3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민간·공공협력 국가결핵관리사업 2012 종합평가대회에서 해운대백병원이 그간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부산권역의 원활한 사업 운영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병원으로 선정됐다.

결핵관리사업은 민간 의료기관과 정부가 협력해 결핵 환자를 관리함으로써 치료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이다.

해운대백병원은 호흡기내과 류지원 교수를 중심으로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를 두고 결핵 환자 관리와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외국에 있는 동안 건강보험 처리 어떻게

Q 국외 출국해 외국에 있는 동안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며, 국외에 출국 중 잠시 귀국해 병원 이용 시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A 내국인이 1개월 이상 국외로 출국을 하게 되는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고 보험료도 면제됩니다.

또 국외 출국 중 귀국해 1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거나 1개월 미만 거주하더라도 요양기관을 이용해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입국해서 월 중 진료받고 월 중 출국한 경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출입국 시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신고(1577-1000)하기 바랍니다.

100대 강소기업 채용박람회

동명대서 …산학협력엑스포도

부산의 100대 강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학생들의 취업을 높여줄 박람회가 동명대학교에서 개최된다.

28일 동명대에 따르면 1200여 기족기업 중 내실 큰 강소기업 100여 개사가 참여하는 채용박람회(잡 페스티벌)와 학생들의 수준 높은 121개 산학협력형 실습 작품을 소개하는 캡스톤디자인경진대회,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가족기업 장학금 2000만원 전달, 취업 특강 및 상담 등 '2012TU산학협력엑스포'를 연다.

29일 오전 11시 개막식행사에 이어 취업을 위한 법률 특강 및 상담과 예쁜 얼굴 만들기, 눈이 나쁘면 인상도 망가진다, 시력 교정 방법 리식 라섹의 모든 것 등이 진행된다.

이어 30일은 취업특강 '동명인이여 꿈을 펼쳐라!'가 오전 10~11시,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오후 1~4시, Yes Leader 기업가정신특강 '창업에 날개를 달자' 오후 3~4시, 선취업후진학 대학 탐방, 제4회 뷰티케어학과 졸업작품전시회 등이 준비된다.

에어부산 점유율 55% 부산~서울 노선 '접수'

에어부산이 부산~서울 노선에 취항한 지 4년 만에 이 노선 '리딩캐리어(Leading Carrier)'로 등극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28일 밝혔다.

에어부산은 취항 초기 19%라는 낮은 시장점유율로 시작했으나 1년 만인 2009년 말 41.3%까지 두 배 이상 점유율을 늘렸고 이러한 증가세를 꾸준히 유지하다 마침내 올 11월 55%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여 경쟁사를 제치고 역전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한방칼럼

혈액순환장애는 어혈을 제거

어느날 갑자기,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가쁘다. 손발이 차고 저리다. 어깨 근육과 뒷목이 뻣뻣하다. 두통이 잦고 어지럼증이 있다. 쉬어도 몸이 무겁고 개운치 않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어혈(혈전, 순환되지 않는 피)을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 중 하나로 본다.

이 어혈로 인해 씨성두통이나 편거증 목 어깨결림, 손발저림, 수족냉증, 심장질환, 근육마비, 고혈압, 중풍, 동맥경화, 안면피부질환 등 각종 순환기계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런 질환들은 중년이후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혈관이 노화되어 각종 노폐물이 혈관에 쌓이기 때문이니, 건강의 일적 요소인 어혈을 약물이나 수술요법을 쓰지 않고 몸 밖으로 뽑아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한의학적 방법이 금진옥액 요법이다.

금진옥액요법은 흔히 죽은피를 뺀다고 하는 사혈요법의 일종. '금진옥액'이라는 말은 사혈을 하는 부위가 혀 아래의 금진, 옥액이라고 하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붙여졌다. 이는 혀 아래의 정맥에서 어혈을 제거하는 치료법으로 기존의 사혈요법이 소량의 혈액을 제거하는데 그친 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어혈을 제거함으로써 혈액순환 장애로 오는 각종 질병에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금진옥액요법 시술에서는 힘인에서 마치 실타래 같은 것이 나온다. 이것은 몸 안에 있던 섬유소들이 시술한 부위를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정상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섬유소가 많이 나오고 피가 탁할수록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어혈이 많은 상태라 볼 수 있다. 시술할 때 따끔할 정도의 통증만 느낄 뿐이다. 단, 혈액관성 빈혈 혈우병 환자는 시술할 수 없다. 어혈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타박상, 골절 등 교통사고나 스트레스, 장시간 눕거나 앉아있어도 생긴다.

허담한 순봉 금련 금주 녹황재 야채나 등푸른 생선을 먹는 것이 혈액순환장애 질환 예방에 좋다. 또한 달맞이한의원(www.moonhill.co.kr)의 해독요법은 금진옥액 외에도 간정화지료, 청장요법 등으로 인체 정화를 통해 각종 질병을 다스린다.

가공된 음식의 발달 및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배변습관으로 인해 대장에는 묵은 변이나 숙변이 고여 있게 되어 우리 몸에 유해한 세균이 번식하고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 흡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부패된 가스가 신체에 흡수되어 인체의 면역이 떨어진다. 묵은 변이나 숙변을 제거하여 대장을 정화해주는 청장요법은 인체의 해독에서 중요한 것이다.

한의학박사 허창구 원장

또한 간 속에 분포된 담관에는 담즙찌꺼기나 노폐물 등이 있는데 이를 제거하여 간이 대사하고 남은 찌꺼기를 원활히 내뿜을 수 있도록 하수구를 청소하듯이 정화해주는 간정화치료를 시행하면 간 기능이 좋아지면서 피로가 덜어지고 몸이 가벼워진다.

이 청장요법과 간정화치료는 금진옥액요법과 함께 인체의 독소를 배출시키는 중요한 해독요법이다. 단 대장 및 직장, 간에 질병이 있는 환자는 진료 및 상담 후 시술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왠지 밋밋한 '60초 전쟁'

朴·文 TV광고 시작…"노무현의 눈물·육영수 할머니 같은 임팩트는 못줘"

"여사님처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28일 충남 홍성군 오관리 하상복개주차장에서 한 시민에게 고 육영수 여사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18대 대통령 후보 선거전이 안방으로 파고들며 '60초 전쟁'을 시작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TV 광고가 27일 첫 방송된 후 각 캠프는 "우리 TV 광고가 더 낫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결정적인 장면'이 없어 아쉽다는 평을 받았다.

앞선 대선에서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노무현의 눈물'이라는 광고가, 2007년에는 이명박 후보가 내세운 '욕쟁이 할머니'가 화제였다. 정치권에서는 TV 광고가 승패의 향배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 중 하나가 됐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 측이 내세운 첫 TV 광고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지원 당시 피습 장면을 재연해 '박근혜의 상처'를 집중 부각했다. 문 후보 측은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다음날 문 후보가 자택에서 대선 출정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진잔하게 전달했다.

자당 TV 광고에 대해 새누리당은 "위기 속 강인함이 잘 표현됐다" 민주당은 "편안하고 서민적인 이미지 전달에 효과적이었다"고 각각 자신감을 보였다.

상대 후보에 대한 평가는 박했다. 변추석 새누리당 홍보본부장은 "2002년 '노무현 광고'는 상징적인게 있었지만 이번에는 포커스가 흐트러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유은혜 민주당 홍보본부장은 "감추고 싶은 면을 이용해 국민에게 겁을 주는 느낌이라 일반 유권자에게는 부담스러운 광고"라고 깎아내렸다.

◆ 문재인 광고 고가 의자 논란

한편 문 후보 측은 TV 광고에서 문 후보가 앉은 의자가 900만여 원의 고가로 알려지며 논란을 겪었다. 문 후보 부인 김정숙 씨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50만원에 산 중고"라며 "이런 것까지 다 밝혀야 하나 눈물이 난다"고 해명했다.

/김유리기자 grace@metroseoul.co.kr

"할아버지처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28일 대전시 유성구 신성동 사이언스어린이집을 방문,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재자 신고 첫 100만 돌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대선 부재자 투표 대상자가 108만6687명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총 선거인 수(4048만3569명)의 2.7%에 해당하며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부재자 신고자는 선관위에서 보낸 봉투와 부재자 투표용지를 갖고 다음달 13~14일 전국에 설치돼 있는 부재자 투표소 중 가까운 곳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단, 투표소에 오기 전에 미리 기표를 한 투표지는 무효처리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부터 출근길에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부재자 신청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박동우기자

또 속만 태우고 떠난 安

"앞으론 지지자 입장에서 판단"… 文 지원 언 밝혀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칩거 5일 만인 28일 향후 행보와 관련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제 개인 입장이 아니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안 전 후보가 공평동 선거캠프 부근에서 본부장 및 실장급 인사들과 만나 오찬을 함께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유민영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유 대변인은 "안 후보가 담담해 보이고 편해 보였다. 자연스럽게 우리(캠프 인사)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안 전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지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큰 마음의 빚을 졌다"며 "이 빚을 꼭 갚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주요 관심사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선거 지원 이나 회동 여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캠프 인사는 "안 후보는 지금까지 한 말 그대로 실천해왔고 약속을 다 지켜왔다"며 "조만간 선거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사퇴 선언 다음날인 24일부터 지방에 머물다 이날 오전 상경해 본부장·실장급 10여 명과 1시간30분가량 만났으며 오찬 회동 후 다시 지방으로 내려갔다.

한편 안 전 캠프 해단식은 이르면 29일 열릴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안 전 후보 참석 여부는 불확실하다.

/김유리기자

협동조합 소액대출 허용

다음달 협동조합법 시행…정부, 5년간 5만명 취업효과 예상

내달부터 등장할 사회적 협동조합에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가 허용된다. 설립 자본을 확보하기 쉽도록 한 것이다. 또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협동조합은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정부는 28일 오전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향후 정책방향'을 의결했다.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출현할 협동조합의 순항을 도와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5년간 8000개에서 1만 개의 협동조합이 생겨나고, 취업자도 4만~5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5인 이상이 모인 협동조합에 법인 격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재정부는 정책을 총괄하고 관계부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를 담당한다. 시·도는 일반 협동조합의 신고 수리를 맡는다.

고용 창출뿐 아니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물가안정 등 경기 안정화에도 기여할 전망했다. 한살림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유기농 재배 농산물은 산지 직거래를 통해 일반 매장과 비교해 30% 정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김학철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할리우드스타와 파티해요" 28일 오전 부산 신세계센텀시티 6층 마담투소 전시장에서 모델들이 유명 할리우드 배우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파티를 연출하고 있다. 마담투소 부산은 전시관 전체를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연출하고, 산타복장을 한 밀랍인형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마련했다. /뉴시스

'K3' 2만4000명 홀린 시계소리

'사운드 마케팅' 화제

"째깍째깍째깍째깍"

낮게 깔린 시계 초침 소리와 함께 긴장감이 고조되고 곧이어 "띠- 띠- 띡" 초침이 3시 정각을 가리키는 소리가 울린다. 그리고 들리는 한마디 "K에 쓰리가 붙는 이 시간부터."

최근 독특한 시계 사운드로 화제가 되고 있는 기아차 'K3'의 광고다. K3는 출시 2개월 만에 내수시장 판매 5위, 출고 1만6000대, 계약 2만4000대를 돌파해 준중형의 새로운 '대세'라고 할 만하다. 이러한 판매 상승에는 K3의 '사운드 마케팅' 광고 전략이 주요했다는 평이다.

K3 광고가 소비자를 사로잡은 것은 바로 비트감이 느껴지는 내레이션과 "K에 쓰리가 붙는 시간"을 형상화한 시계 사운드였다.

리듬감 리듬이 느껴지는 내레이션은 독특한 매력을 발휘하고, 시계 초침 소리에 맞춰 'K'를 단 초침이 숫자 3에 다가가는 광고 화면은 K3만의 사운드 시그니처를 완성한다.

/박선미기자 psm@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1490만 육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가 청약종합저축 출시 이후 급증하면서 지난 10월 기준 1489만4632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의 기능을 모두 하나로 합친 청약통장으로,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와 미성년자 등 누구나 가입 가능(1인 1통장)하며 청약 시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어디든 청약 가능한 획기적인 상품이다.

다만 단일통장 최초로 1000만 가입자를 돌파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향후 분양시장 침체와 공급 부족 등으로 사용할 곳이 마땅치 않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선미기자 psm@

경상수지 9개월째 흑자…올 누적 340억 달러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9개월째 흑자를 이어갔다. 누적 경상수지는 341억3000만 달러로 연간 예상치 (340억 달러)를 넘어섰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10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59억2000만 달러로 지난 9월(59억1000만 달러)보다 소폭 증었다.

경상수지는 올해 1월 9억688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곤 2월부터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10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341억3000만 달러 흑자다. 이는 지난 10월 한은이 수정 전망한 올해 예상치인 340억 달러를 웃도는 수치다.

/박선미기자

나눔으로 더불어사는 건설산업-포스코건설 사회공헌 활발

난치병 환아들의 '희망 브릿지'

이웃 사랑을 위한 포스코건설의 나눔활동이 국내외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한국 메이크어위시재단과 함께 백혈병, 소아암 등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되찾아주는 '희망 브릿지'를 진행하고 있다.

'희망 브릿지'는 난치병 어린이를 직접 만나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이나 갖고 싶었던 선물 등 소원을 이뤄주는 봉사활동으로 3년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포스코건설의 대표 나눔활동이다.

이와 함께 임직원이 정성껏 제작한 테디베어 인형에 희망 메시지를 담아 난치병 아동에게 선물하는 '사랑의 테디베어 만들기' 행사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하고 있다.

그밖에도 포스코건설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저소득 계층과 장애인 가정 등을 위해 도배, 장판, 시설 개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을 '나눔의 토요일'로 지정하고 임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해외지역 현장에서 '1현장 1이웃'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리더를 양성할 목적으로 창단한 대학생 봉사단 '에피 밸더'와 함께 해외 의료봉사, 유치원 건립 등 다양한 종류의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선미기자

거실서 북한산·골프장 한눈에

삼송 호반베르디움 분양

호반건설이 고양 삼송 9블럭 호반베르디움을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22층에 전용면적 84A㎡, 84B㎡, 106㎡, 109㎡, 109㎡의 총 353세대로 구성됐다. 호반베르디움은 뛰어난 입지 혜택과 향도세 면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삼송택지지구에 들어선다. 서울 은평뉴타운, 강북와 직선 거리로 100m가량 떨어져 있다.

A9블럭 삼송 호반베르디움은 삼송지구 내에서도 최고의 조망권을 자랑한다. 삼송지구를 둘러싼 북한산 국립공원은 물론이고 단지 서측으로 18홀 규모의 뉴코리아CC가 있어서 사계절 골프장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단지 내 녹지 공간도 풍부하다. 아울러 신세계그룹이 최근 삼송택지개발지구 땅 9만6555㎡(2만9208평)를 1777억원에 매입하는 등 총 4000억원 규모로 2017년까지 교외형 복합쇼핑몰을 건립한다.

삼송 호반베르디움은 은평뉴타운과 인접했음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은평뉴타운 대비 평당 300만원 이상 저렴하다. 또 파격적인 조건으로 분양 중이라 실수요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문의 02)358-2200

/임시비기자

새로 나온 책

뇌졸중 이기는 힘
주부의벗사 지음/권혜자 옮김/상상호미디어 펴냄

이 책은 서구화된 식생활과 과도한 스트레스, 운동 부족이 더해진 현대인들에게 그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는 뇌졸중의 총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뇌경색,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로 나뉘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서부터 원인, 증상, 검사, 치료 방법은 물론 후유증과 재활 치료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이어진다. 뇌졸중 증상으로 쓰러진 환자를 발견했을 때의 대처 방법, 외과적 시술 방법이나 병원에서 이뤄지는 치료 방법도 소개했다.

주식완결판
김원기 지음/위너스북 펴냄

증권 전문 방송 부자TV의 운영자 김원기 대표의 세 번째 책. 초보부터 고수까지 누구라도 펼쳐볼 수 있는 이 책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성공 투자법을 제시해준다. 저자에 따르면 신기치 투자를 따르는 왕초보 개인투자자들일지라도 주식의 A to Z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다. 또 고수보다 탁월한 수익 내기도 가능하다. 현대인의 필수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은 주식으로 꿈을 이루고 싶은 분들을 위한 책이다.

잔인한 폭력 경쾌한 자백

주인님 나의 주인님
전아리 지음/은행나무 펴냄

한국문단의 '앙팡 테리블' 인간 내면 욕망·쾌락 조명 다음장편은 '유혹의 기술'

스물여섯의 전아리는 젊은 작가다. 지난 12일 서울 신문로에 있는 카페 아로에서 만난 전아리는 "별로 수식어를 받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중·고 시절부터 문학상과 백일장을 휩쓸며 '문학 천재'로 불렸다. 20대 들어서는 제2회 세계청소년문학상과 제3회 디지털작가상 대상을 잇달아 받아 한국 문단의 '앙팡 테리블(무서운 아이)'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전아리는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변화가 무쌍한 작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호칭이 필요하다면 '작가'이면 그뿐이지 수식어로 제한되고 싶지 않다는 의미로 들린다.

이번에 출간된 소설집 '주인님 나의 주인님'에는 전아리가 2007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문학지에 발표한 단편 8편이 묶여 있다. 짧기이지만 프로 이야기꾼으로 발돋움한 전아리를 확인할 수 있다.

전아리는 "이 책에 실린 소설들은 폭력을 주제로 하고 있다"고 밝힌다. 문학평론가 이소연은 "독자를 시험에 들도록 만든다"고 평했다.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언제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는 것이다. 소설에 묘사된 폭력의 일상화와 집착이 그런 질문을 만들어낸다. 이 소설집은 폭력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준다. 손찌검 한 번 한 적 없이 상대의 삶을 손아귀에 쥐고 뒤흔들거나, 폭력에 노출된 자신을 그대로 방치 혹은 아예 쾌락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8편의 이야기들은 실상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내면에 감춰져 있는 어둠을 자극적이면서도 경쾌하게 풀어내고 있다.

전아리는 소설집 처음에 나오는 '학가 지망생'에 대해서 "얽혀 있는 권력 구조와 사람의 욕망이 불러일으키는 반전을 담았다"고 말했다.

'오늘의 반성문'은 "선생님 전 맞는 게 좋아요"라고 말하는 학교 폭력의 희생자가 주인공이다. 전아리는 "자존감이 강하고 욕망이 있고, 삶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 선택적 마조히즘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흥미롭게 기학적인 인물인 '뫼비우스 마이너스'에서의 '소년'에 대해서도 "욕망이 이상하게 드러난 악한 사람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고, 소녀를 평생 동안 이용하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소설집 주인공들은 모두가 폭력과 집착과 음모에서 흘러져 나오는 쾌락에 도취돼 있는 인물들이다.

전아리는 폭력의 의미를 확대하면서도 이를 전복시켰다.

"살아 있다는 건 경이로운 일"이라고 느끼는 전아리에게 자연스런 귀결이다. 그래서인지 여섯 번째 장편소설이 될 다음 작품은 '유혹의 기술'을 다룰 계획이다. 전아리는 "실연과 복수에 관한 로맨스 반전 소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김재성기자 szyhana@metroseoul.co.kr

이기는 선거, 지는 선거의 비밀

킹메이커
EBS 킹메이커 제작팀 지음/김영사ON 펴냄

선거철이 다가오면 신문과 뉴스에는 후보, 정당, 공약, 표심, 지지율 등의 단어가 난무한다. 그와 동시에 모략, 비방, 공방 등의 단어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그런데 대선이라는 이름 한가운데서 있는 우리는 대통령 선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들이 있는 걸까? 이 책은 현대사회에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선거전을 분석했다.

스토리텔러로 방송에 참여했던 손석희 교수는 특유의 지성으로 선거전의 본질을 파헤쳤다. 또 정치와 선거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과 깊이 있는 접근으로 선거를 보는 새로운 시선을 선사했다.

러시아, 미국의 뉴욕, 워싱턴, 시카고 등을 돌며 1988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마이클 듀카키스, 오바마 캠프의 조직이론가 마샬 간즈 등 선거 관계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실었다. 또 2012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현지 취재와 함께 인지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를 비롯한 세계적인 석학들을 만났다.

역사적 사례와 심리학적, 과학적으로 다양한 실험 등의 디제로운 방법으로 선거 전문가조차 몰랐던 선거전의 비밀을 소개한다.

고3 엄마의 감성 사진에세이

힘내라는 말은 흔하니까
소광숙 지음/보라이북 펴냄

"힘내라는 말보다, 사랑한단 말보다 더 특별한 마음 표현은 없을까? 나는 힘드냐는 말을 건네려다 그만두었다. 당연히 힘들 거고, 힘드러 죽을 테고, 빼기 고를 것이 뻔했다. 아이에게 건넬 말이 뭐 좀 없을까 생각하다가 떠날 하는 말이라곤 '배고프지? 힘들지? 잘래? 공부 안 해?' 뿐이다. 이런 말 말고 근사한 말 어디 없을까?"(본문 중에서)

고3의 일상은 뻔하다. 학교, 학원, 집을 쳇바퀴 돌 듯 왔다 갔다 하는 수험생 자녀에게 엄마가 건넬 말도 뻔하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있는 엄마의 마음이 '사진 일기'라는 기록으로 남았다.

모의고사 점수가 떨어져 엄마와 다투고 눈물을 보이는 순간, 마음을 다잡지 못해 머리카락을 자기 손으로 자른 순간, 불합격이 계속되는 순간 등 고3과 그 부모라면 공감이 될 만한 63개의 순간들을 책에 담아냈다.

저자 소광숙은 고3 딸 재영이의 하루하루를 흑백 사진과 간결한 글로 기록해왔다. 평범한 고3 딸의 일과를 담담히 담아낸 사진과 글 속에서 엄마와 딸 사이에 오가는 섬세한 감정의 결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화제의 책

슬로건은 카피보다 강하다

슬로건 창작의 기술
류진한 지음/한경사 펴냄

현대의 마케팅에 있어서 하나의 제품이나 단발의 광고보다 통합 브랜드나 장기적인 캠페인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 호황과 불황을 막론하고 신제품은 지속적으로 나온다. 이에 따르는 새로운 브랜드와 슬로건의 필요성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슬로건에 대한 관심은 광고 헤드라인이나 보디카피가 받아온 스포트라이트에 비하면 아직은 '카피의 사각'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부족하다.

단발적인 카피보다는 전체적인 캠페인을 이끌어주는 캠페인 카피, 슬로건과 같은 '호흡이 긴 카피'들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실감하고, 체계적인 관심과 연구에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21년이 동안의 광고현장 경력과 얇은 학문적 지식으로 틈틈이 메모해 놓은 4000개 작품의 다양한 슬로건 사례와 이론들을 정리했다. 이 책이 광고인을 꿈꾸는 대학의 학생들은 물론 광고회사에서 성공 캠페인을 기획하는 카피라이터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그리고 각 기업의 광고나 홍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실제 캠페인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업무에서 효과적인 '슬로건 창작'에 관한 체계적인 전략과 방법으로 활용되길 바라고 있다.

제1부는 슬로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개요를 이해하기 위한 내용이다. 슬로건의 어원과 개념, 특징, 기능, 구분, 지향성, 슬로건에 대한 관심과 오해 등으로 구성됐다. 제2부는 슬로건 창작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작 전략에 관한 내용으로 'Why?' for Slogan, 'Brief' for Slogan, 'ROI' for Slogan, 'Grid' for Slogan, 'Positioning' for Slogan, 'Life Cycle' for Slogan, 명작 슬로건의 창작단계, 명작 슬로건이 숨어 있는 곳 등으로 구성됐다. 제3부는 공공 슬로건, 그룹 및 기업 슬로건, 브랜드 슬로건, 세계의 정치 및 선거 슬로건 등 4000여 작품에 달하는 국내외의 명작 슬로건을 발췌해 제공한다. /김재성기자

中 '한 자녀 정책' 버린다

소득 수준 높은 도시부터 두 자녀 허용 확대하기로

중국 당국이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해 소득 수준이 높은 도시 지역부터 두 자녀 허용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장웨이칭 전 중국인구가족계획위원회 주임은 산아 제한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한 자녀 정책의 수위를 조절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장 전 주임은 "현재 부모 모두 독자일 경우에만 두 자녀를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도시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1970년대 후반 실시된 가족계획에 따라 한족(漢族)을 대상으로 한 자녀 정책을 강제 시행했다. 그 결과 2000년대 들어 10년간 중국의 인구 증가율은 0.57%로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수십 년에 걸친 산아 제한으로 출산율이 급감하고 초고속 노령화가 진행, 사회·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중국 정부는 최근 정책 변화를 검토해 왔다.

앞서 중국 공산당은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때 발표된 인구정책 관련 업무보고에서 "가족계획 정책 유지를 기본 국책으로 하면서도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을 촉진해 가겠다"고 명시해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급격한 인구 증가를 우려해 주요 빈곤 지역에서는 인구 증가율을 연간 0.8%로 묶는 계획생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세계 최고 알통맨 이집트 출신 보디빌더 무스타파 이스마일이 16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체육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스마일은 세계 최대의 알통과 이두박근, 삼두박근을 가진 사나이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 /AP 연합뉴스

재개발·재건축 매몰 비용 70%까지 지원

내년에만 104억 필요 서울시, 정부지원 요구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해산 구역에 대해 매몰비용의 70%까지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재원 부담에 만만치 않아 지원이 끝까지 원활할지는 미지수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7일 상임위를 열어 매몰비용의 최대 70%를 시가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이 내달 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모두 39억원이 지원된다.

위원회는 193개 정비구역 중 39개 구역이 내년 중 추진위를 해산할 것으로 보고, 104억83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9억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24억5000만원, 뉴타운 내 재개발 구역에 14억5000만원이 쓰일 예정이다.

그러나 시내 260개 추진위의 매몰비용은 997억원으로 추정된다. 절반이 해산된다고 하면 시의 부담 금액은 349억원, 30% 해산하면 209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매몰비용에 대한 국가의 일정 부분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동호기자

46개大 정시 입학설명회 내달 1일 명지대서 열려

명지대학교(총장 유병진)는 28일 서울·경인지역 대학 입학처장 협의회 주최로 이 지역 46개 학교가 참가하는 2013학년도 정시 입학설명회를 다음달 1일 연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소재 명지대 인문캠퍼스에서 오전 9시부터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건국대, 경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중앙대 등 모두 46개 대학이 참여한다.

김병만·조수미 "투표 하실거죠"

선관위 광고 등장 눈길

다음달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 참여 광고가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00~2009년 평균 투표율은 56.9%로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인 26위에 불과했다.

선관위의 선거 광고 시리즈 중 '투표 참여' 편에는 성악가 조수미 씨가 출연,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을 권했다.

광고는 기표소에 들어서는 할아버지가 투표하고 나오면서 자전거를 타며 노후를 즐기는 모습, 임신부가 투표를 하고 두 아이의 어머니로 취업맘이 되는 모습, 젊은 청년이 직장인으로 알바중하는 모습을 담아 투표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광고 말미에는 방송인 김병만 씨와 지상파 방송 3사 메인뉴스 앵커, 장애인 및 다문화가정 홍보대사 등이 모두 함께 등장해 선거에 대한 관심을 독려했다. /배동호기자

文측 "朴, 맞짱토론 거부 이번엔 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측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 거듭 양자 TV토론을 제안하며 압박했다.

박 후보 측은 빡빡한 일정 때문에 시간상 불가능하다며 이유는 야권 후보가 너무 늦게 결정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28일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박 후보는 범야권 대표로 문 후보가 결정됐는데도 여전히 양자 TV 토론을 피하는 이유가 뭐냐"고 공세를 취했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와 검증을 피해 손쉽게 대선에 나가겠다는 발상은 21세기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다"면서 "즉각적인 TV 토론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후보가 KBS와 SBS의 TV 토론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 후보는 진짜 국민면접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문 후보 측의 제안에 대해 박 후보 측 박선규 대변인은 "다음달 18일까지 모든 일정이 짜여진 상황"이라며 "상대 후보가 너무 늦게 결정됐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지 토론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다. 선관위 토론이 4, 10, 16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이 중 한 차례라도 해보고 난 뒤에 필요성을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배동호기자 elnino@

metro entertainment

Star bag

이효리 "상업 광고 안할것"

가수 이효리가 자신의 사회활동 취지와 어긋나는 광고 출연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물 보호, 환경 보호, 채식주의 등을 실천하고 있으며 모피, 삼푸, 유제품 등의 상업적인 광고에 출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속사는 전했다. 그러나 광고계를 은퇴한다는 소문은 과장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발표할 새 앨범을 작업 중이다.

신현준 '일일주부' 공약 실천

배우 신현준이 KBS 월화극 '울랄라부부' 시청률 공약으로 내건 일일 주부 이벤트를 지켰다.

그는 마지막 회가 방송된 27일 서울 마포구에 사는 한 모녀의 집을 찾아 손수 준비해온 재료를 가지고 된장찌개와 파전 등을 만들고 한우고기를 곁들여 저녁상을 대접했다. 앞서 신현준은 시청률 1위를 하면 일일 주부가 되겠다고 밝혔고, 드라마는 첫 회에 10.9%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JYJ-SM 계약분쟁 합의

JYJ가 SM엔터테인먼트와 3년4개월간 이어온 전속계약 분쟁을 끝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은 관련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이후 상호 개인 활동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SM 측은 "더 이상의 추가 피해나 불필요하게 이슈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정우성 "이지아 결혼 알았다"

배우 정우성이 전 여자친구인 이지아와 서태지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29일 방송될 MBC '무릎팍도사'에 게스트로 출연한 그는 프랑스에 함께 여행 갔을 당시 이지아가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에서 솔직한 심경을 모두 털어놓아 제작진을 놀라게 했다.

겁없는 여자 맘은 여려요

정글 미녀 전혜빈(29)이 무서운 줄 모르고 단장하고 카메라 앞에 섰다. 15일 종영한 SBS '정글의 법칙 W'는 정글의 법칙 의 마다가스카라 편이서 꿈 사라지 않는 털털한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그는 "나를 보는 시선들이 호의적으로 달라진 걸 느낀다. 요즘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말했다.

 # 여자 김병만 김사할 따름

올해 설 특집으로 방영된 '정글의 법칙' 여성판인 '정글의 법칙 W'를 통해 '여자 김병만'이라는 애칭을 얻은 데 이어, 아프리카 오지인 마다가스카라 탐험에 3주간 유일한 여성 멤버로 참여해 김병만, 류담, 정진운 등 남성 멤버들도 혀를 내두를 만한 생존 본능을 과시했다. 확장가 없는 맨발로 달리고 나무를 오르는가 하면 갓 잡은 뱀을 만지고 먹기도 했다.

"예전 때부터 겁은 없었어요. 뱀을 만지거나 먹는 건 아무렇지 않았죠. 노린내가 나는 고슴도치만큼은 먹기 힘들었지만요. 그래도 마음은 여린 편이랍니다. 혈액형이 AB형이라 과감함과 소심함을 오갈 뿐예죠. 그런 저에게 '여자 김병만'은 감사한 말이에요. 옆에서 본 김병만씨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었죠."

당시 가장 어려웠던 점을 묻자 "잠을 자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다. 화장실을 찾기 힘든 오지인 데다 풀밭이라 볼일을 보는 게 여의치 않았고, 먹을 것도 찾기 힘들어 변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됐다"면서 "내가 사람인지 동물인지 모를 지경이었다"고 귀엽게 투정했다.

 # 포기의 순간 이겨낸 건 웃음

사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다고 고백했다. '정글의 법칙 W' 때의 경험에 [illegible]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작진의 말을 믿었[illegible] 거라 여겼던 예상이 완전히 어긋났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어요. 마치 군대를 [illegible] 다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자급자족 원칙에 따라 밥을 전혀 주지 않더라고요. 괴물 장어를 맨손으로 잡을 수 있었던 건 배가 고파서였죠. 혹하하 방송에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고생이 심했는데, 버틸 수 있었던 건 웃음 덕분인 것 같아요. 김병만씨를 비롯해 출연진 중 개그맨이 많아 즐거웠죠."

고된 촬영 뒤에 귀국 후 한동안 후유증을 앓기도 했다. 이번 출연 전까진 흔한 변비나 장염 한 번 앓아본 적 없을 만큼 건강한 체력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장염으로 고생 중이다. 한 번 더 갈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당장은 힘들 것 같다"면서도 "나중에 생각해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 건강한 이미지 '액션 배우' 하고파

고생은 했지만 그만큼 값진 경험이었다. 삶을 대하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무엇보다 외부의 시선이 호의적으로 달라진 것을 느꼈다. 2002년 걸그룹 러브로 데뷔한 후 10여 년간 따라다니던 가시 돋힌 것 같은 이미지를 벗어났다.

"대본이 있는 게 아니었기에 제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좋은 기회였죠. 또 힘든 경험을 해보니 앞으로 무엇이든 다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데뷔 초 예능에서 '악사돈 예라'는 별명을 얻으며 뜨고, 이번 예능을 통해 다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앞으로는 "작품을 통해 배우로서 사랑을 받고 싶다"고 했다. "'정글의 법칙'을 통해 얻은 강한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액션 배우는 정면 자신 있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탁현정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사진/한제훈(타운드파이프) 디자인/김지연

정글의 법칙 끝낸 **전혜빈**

도시형생활주택
서면 융프라우

강하게 짓는다. Strong Built 강진종합건설

"임대보장제가 필요없습니다."

☑ 서면융프라우는 입지가 우월합니다.

지하철 1호선 범내골역과 도보 1분거리 안에 위치하고 서면1번가와 문현금융단지가 도보로 5분거리에 있어 쇼핑과 금융 그리고 생활의 편의를 누릴 수 있습니다.

☑ 풍부한 임대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풍부한 임대수요입니다.
서면융프라우는 문현금융단지, 서면1번가, 범내골업무타운의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50년동안 금이가지않는 건물을 짓습니다."

대연동 부산예술회관을 지어 **부산을 대표하는 건물로 '2011년 부산다운 건축상'**을 수상한 강진종합건설이 짓습니다.

강하게 짓는다. Strong Built 강진종합건설

2012년 12월말까지 한시적 적용

7000만원대 10평형소형아파트

분양문의 051) 612-0800

시행·시공사 강진종합건설주식회사 Kangjin Construction Co., Ltd.

19금·밴드 공연…입맛대로 골라봐

박경현

연말 가볼만한 무대 2 콘서트

대중음악 공연계의 최대 성수기인 연말 시장이 열렸다. 연중 콘서트의 40%인 약 700여 건이 12월에 쏟아진다. 치열한 티켓 경쟁과 더불어 내게 딱 맞는 공연을 고르기 위한 예비 관객의 고민도 함께 시작됐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 공연 지존 '들의 향연

매년 변함없는 인기를 유지하며 공연계 레전드로 자리 잡은 솔로 가수들은 올해도 치열한 티켓파워 경쟁을 벌인다.

라이브의 황제 이승철은 21~24일 코엑스홀 D에서 '록 앤 롤 드리'라는 이름으로 공연한다. 히트곡으로 무대를 풍성하게 채우는 것은 물론 재능 기부도 함께 실천한다. 회당 520석을 '러브 브릿 석'으로 지정해 티켓 판매 수익금 전액을 아프리카 차드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인 '리 엔 차드 스쿨' 건립 기금으로 기부한다.

이문세는 28~31일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관객과 만난다. 31일 무대는 지난해 4월 막을 올린 '2011~2012 이문세 붉은 노을'의 100회째 공연이기도 하다. 최근 해외 음악 여행을 통해 얻은 결과물도 공연에서 소개된다.

신승훈은 23~25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더 신승훈쇼 팝 투어'를 개최한다. 20년 만에 일탈을 선언해 '발라드 황제'의 이미지를 벗고 뮤지컬부터 댄스, 연기까지 역대 가장 대중적인 레퍼토리로 재미를 더한다.

김장훈은 10집 발표와 함께 20~25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이듀'라는 이름의 콘서트를 연다. 이번 공연을 끝으로 한동안 중국과 미국 활동에 전념할 계획이라 어느 때 보다 특별한 무대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들 외에 자세대 '라이브 지존'인 박효신과 성시경은 각각 28~29일과 30~31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릴레이로 단독 무대를 연다. 솔로 발라드 가수가 1만 석 규모의 공연을 2회 개최한다는 점에서 막강한 티켓파워를 확인할 수 있다.

◆ '애들은 가라' 어른들끼리 화끈하게

연말의 들뜬 분위기에는 '19금' 콘서트가 안성맞춤이다. '19금' 공연의 대명사 박진영은 28~31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나쁜 재즈바'를 개최한다. 싸이와 DJ DOC가 올 연말 국내 콘서트를 쉬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풍부한 밴드 사운드를 입혀 재즈바 형식으로 변화를 시도했고, 섹시 콘셉트는 더욱 강해졌다.

브라운아이드걸스는 여성 그룹으로는 이례적으로 '19세 미만 관람불가'로 공연을 진행한다. 24~25일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열리는 '투나잇 37.2도'는 남녀가 뜨거운 사랑을 할 때의 체온을 뜻하는 것으로 '4인 4색'의 은밀한 러브 스토리 형식으로 무대를 꾸민다.

◆ 콘서트도 하이브리드 스타일로

한 팀의 가수만을 보고 2시간 이상을 보내는 것이 아쉽다면 수준 높은 합동 공연을 찾으면 된다. 공연계에는 "그해 가장 '핫한' 가수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체조경기장을 차지한다"는 말이 있으며, 올해는 김범수와 박정현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그해 겨울'이라는 이름으로 23~25일 무대에 오른다. 폭발적인 가창력의 솔로 무대와 완벽한 하모니를 선사하는 듀엣 무대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YB와 리쌍은 록과 힙합의 결합으로 올해 공연계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닥치고 공연'이라는 뜻의 '닥공'이라는 이름을 앞세운 이번 공연은 말이 필요 없을 정도의 에너지 넘치는 활광적인 무대로 꾸밀 계획이다. 폭발적인 반응에 1회 공연을 추가해 23~25일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개최된다.

최근 종영한 엠넷 '슈퍼스타K4'는 톱 11의 출연자들이 꾸미는 콘서트로 대미를 장식한다. 20~21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방송에서 보지 못한 출연자들의 숨은 실력을 볼 수 있다는 점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라이브 공연에는 역시 밴드

라이브의 묘미는 밴드 공연에서 제대로 맛볼 수 있다. MBC '나는 가수다2'가 낳은 올해의 스타 국카스텐은 30~31일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타임 어브덕 타임'을 개최한다. '국카스텐의 과거-현재-미래'라는 테마로 기존 곡들과 방송에서 선보인 명곡들을 들려준다.

어쿠스틱 R&B 소울 밴드 에반자카파는 21~22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공연한다. 티켓 오픈 10일 만에 전석이 매진돼 24~25일 수원 콘서트를 추가했다. 펙퍼톤스는 21~23일 악스코리아에서 정통 밴드 음악의 에너지를 전달하며, 오랜 공백을 깔내고 돌아온 엔씨더맥스는 24~25일 같은 곳에서 컴백 무대를 연다. 부활은 25일 그랜드 힐튼 서울 호텔에서 두 차례 단독 콘서트 '퍼플 웨이브'를 개최한다.

wind5686@naver.com

6가지 치즈의 풍부한 맛!

2012년 11월 19일 ~ 2013년 1월 31일 까지

존스 페이버릿 또는 식스 치즈 중 **하나**를 주문하시면

치킨스트립 + 콜라 1.25L 무료

2만원 이상 구입 시
2013년도 파파존스 캘린더 증정

파파존스 신제품 **존스 페이버릿**과 **식스치즈**는

6가지 치즈로 만들어 집니다!

모짜렐라 치즈

파마산 치즈

로마노 치즈

아시아고 치즈

프로볼로네 치즈

폰티나 치즈

1577-8080 | www.papajohns.co.kr

어깨 힘줄 파열 관절 내시경으로 감쪽 수술

닥터 Q&A

Q 52세 남자 환자로 어깨 힘줄이 파열되어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수술이며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A 어깨 힘줄은 회전근개라고 하며 어깨관절의 회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힘줄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거나 반복적인 작업, 과사용 또는 사고로 인해 이 회전근개 힘줄이 끊어지게 되면 만성적인 어깨 통증과 함께 야간통, 특정한 자세에서의 운동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 수술은 어깨관절을 10cm 정도 절개하여 파열된 힘줄을 봉합하는 것으로 수술 후에 염증이나 흉터, 관절이 굳는 강직 등의 합병증이 잘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관절 내시경 수술의 발달로 이러한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은 관절경 수술이라고도 하며 직경 4mm의 가느다란 초소형 카메라를 어깨관절에 삽입하여 파열 부위를 확인하고 봉합하는 최소 침습 수술의 하나입니다.

관절 절개가 없으므로 통증이 적고 흉터가 거의 없어 미용적으로도 우수한 수술 방법이며 파열 부위를 약 10배 확대된 시야로 관찰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도 관절 절개 방법보다 빨라 수술 후에는 약 3주간 관절을 고정하고 이후에는 적절한 재활 기구를 통해 관절 운동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 힘줄이 완전히 붙는 시기는 3개월가량 걸리므로 이 기간에 작업이나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8	4		2		6
1		7	3					9
	6							
3		1			8			
		8				6		
			2			4		1
							9	
2					5	1		8
8		5		1	7	3		

	1		7					
		2		1				5
		4		5	9	7	1	
		8						2
	2	3		7		9	6	
5						8		
	9	6	4	3		1		
3				8		5		
					6		3	

스도쿠 정답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3877
www.saju4000.com

도박빚 남편과 이혼후 힘든 생활 기술 배운뒤 옷장사 나서야 이익

토끼로진시 여자 83년 5월28일 1시 5분 남자 82년 5월 31일

Q 2009년에 7년 연애한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저 몰래 도박을 해서 빚까지 진 채 작년에 이혼한 뒤 고 생활비와 양육비도 안 준 채 몇 년째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24개월이 되어가는 아들도 제가 키우고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뒤에 옷 장사를 해도 괜찮을까요?

A 운세의 흐름에서 이혼을 했지만 효갈이 가는 처신으로 사랑을 받는 등덕(日德)과 쌍귀 복록이 두텁고 어려운 중에서도 무지개처럼 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자궁에 파살(破殺)이 작용하여 액운에 있으며 남편은 한을 품은 채 죽음을 겪는 흉포한 성정인 백호살이 생궁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재물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직업은 천을귀인(하늘의 귀인이 도와주는 길운)은 있으나 종업이에 불모한 사업보다는 직장생활이 유리하겠습니다. 아기 키우느라 시간이 여의치 않아 굳이 장사를 해야 한다면 공업기술성(工業技術星)이 있으니 반드시 옷 기술을 배우고 나서 장사를 해야 이익을 얻게 됩니다.

딸 유학 힘겨운 뒷바라지 마음 고생 부모 뜻대로 되기 힘드니 마음 수양

gotaia 여자 63년 5월 28일 양력 오전 7시

Q 존경하는 선생님의 애독자입니다. 제 총의 장래에 대해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유학 간 지가 1년 반이 넘습니다. 내년 9월에 정규대학을 들어가는데 무난히 들어갈 수 있을는지요. 저희 형편이 그리 넉넉지 않아서 뒷바라지를 잘해주지 못합니다. 홀로서기에 성공할 수 있을는지요.

A 사주육십갑자(四柱六十甲子) 중 정화(丁火)로 67년에도 정화인 겁재(본인과 대등한 위치의 기호)가 버티고 있으니 자신의 존재가 미약합니다. 사주뿌리에서 충살이 발생되어 손실이 생기므로 뜻대로 되기는 어려워 보이는군요. 딸 회살로 2013년 6월 지나면서 비견하는 겁이 생기니 운기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는 떨어져 있는 딸을 위해서 상상(心象)으로 운기를 조복해 보십시오. 하늘도 사막과 같은 날씨처럼 피로할 것인데 무상심미묘중(無常心深微妙中)이란 좋은 마음을 잘 닦음으로써 전해되는 불운한 기운을 무효하게 만들 수 있는 마음공부이니 딸에게 전달되도록 해보십시오. 쉬운 좋은 어니니 뿌족한 대안이 안 보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안에 '사주 속으로'에 올 월력의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운세 11월 29일 (음 10월 16일) 박청화 철학원 031-863-8305

쥐: 84년생 의기투합하여 동을 하게 될 듯. 72년생 준하지 않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계획에 따를 것. 60년생 성급히 일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 48년생 미는 사람의 말도 100% 믿지 말 것.

소: 85년생 선배 또는 지인에 힘을 빌려 일을 도모하는 양상. 73년생 앞날의 반등을 위한 준비의 시기로. 61년생 자식에게 용전사를 기대해 본다. 49년생 송부수를 피우는 것이 효과적.

호랑이: 86년생 뜻한 대로 할 수 있으니 열심히 하라. 74년생 새일을 할 기회서 사귀는 인맥을. 62년생 진취귀하의 운. 어려움이 곧 기회가 될 수도. 50년생 사소한 일도 특별히 눈에 들 수 있는 으뜸.

토끼: 87년생 잘해보려고 한 일이 웃음거리가 될 수도. 75년생 눈앞의 장애물을 척결하는 것이 우선. 63년생 이 말 저 말에 기달하지만 시간이 습하니. 51년생 인덕을 성취하는 일에 유리.

용: 88년생 성급함으로 인한 실수를 저하여. 76년생 남의 말을 말기면 뜻밖의 실속이 따를 듯. 64년생 제자리를 지키기에는 이득수기 많은 편. 52년생 결단 보고 판단하는 체통은 자제를.

뱀: 89년생 거짓말을 하다가는 어녀 들통 날 수 있으니. 77년생 귀인을 만나거나 좋은 일이 따를 수도. 65년생 약간의 지름을 감수하면서 목표를 달성. 53년생 비밀을 지키기에 어려운 상황.

말: 78년생 현실성이 부족하여 이루어지기 어려. 66년생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좋은 날. 54년생 겸손을 동반하면서 돈이 들어오는 양상. 42년생 도의주거나 도움받을 일이 많을 듯.

양: 79년생 실속을 챙길 수 있는 운. 67년생 사람을 만날 일이, 여럿이 함께할 일이 많은 하루. 55년생 뭇사람을 통하여 하겠의 실마리를 얻어야. 43년생 식복이 있는 날. 맛있는 식사를.

원숭이: 80년생 문제 해결 능력이 돋보인다. 68년생 활동을 현실하게 해야 목표 달성이 가능. 56년생 큰 계획은 달성되기 어렵더라도 작은 계획은 성공해볼 수. 44년생 현실이 팽팽지만 홍리 적용하게.

닭: 81년생 반복 학습만이 실력 향상의 지름길. 69년생 같이 우물 파지만 남들이 먼저 먹는 격. 57년생 명예나 공익 우선의 활동이 많은 하루. 45년생 과로할 수 있으니 컨디션 조절을.

개: 82년생 일이 다소 지연된다. 70년생 여러 사람들이 나를 부르지만 나가기 즐거울 일은 없을 듯. 58년생 불필요한 곳에 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46년생 선두 예찰에 따른 피곤함은 감수하면서.

돼지: 83년생 뜻밖의 좋은 결과도 기대. 71년생 위신이 떨어지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59년생 변화나 발전을 위한 조짐이 보이는 하루. 47년생 대응한 비판에 처해 일이 진해는 다소 더딜 듯.

50세	60세	70세
월7,570원	월12,600원	월41,810원

(남자, 1인당 기준, 3년만기, 전기납)

30세	40세	50세
월11,000원	월18,160원	월36,220원

(남자, 1인당 기준, 3년만기, 전기납)

치매 간병비
5천만원을 한꺼번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최초 1회한)

암 진단비
2천만원을 진단 즉시!

가입후 91일부터 보장하며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갑상선암은 보장금액의 20%지급

차티스 명품 치매보험

선택계약
- **중증치매간병비 5천만원** (최초 1회한)
  중증치매 상태로 진단확정되고,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 **부가서비스:간병 도우미 1회 3만원 (연 5회)**
  치매담보 가입자가 중증 치매로 확진되어 치매간병인 사용하는 경우
- **7대질병 수술비 50만원 지원**
  7대질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기본계약
-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 5백만원 한도** (Active 보험금)
  약관에 정한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으로 진단 확정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차티스 큰병 이기는 보험 IV

선택계약
- **암진단비 2천만원** (최초 1회한)
  가입후 91일부터 보장하며 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갑상선암은 보장금액의 20%지급
- **뇌졸중(뇌경색, 뇌내출혈) 진단비 2천만원** (최초 1회한)
-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2천만원** (최초 1회한)
- **7대질병 수술비 5백만원**
  7대질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기본계약
-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 5백만원 한도** (Active 보험금)
  약관에 정한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으로 진단 확정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 1644-9265

☎ 1577-6429

월보험료(1인당, 단위: 원)

기본계약			선택계약				
Active 보험료			치매간병비			7대질병 수술비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남자	여자
50~69세	6,270		50세	1,710	2,860	100	90
			60세	6,010	14,[illegible]	320	100
			70세	26,840	71,[illegible]	500	300

- 가입연령 50~70세 · 납입기간 전기납 · 보험료는 상해 1급 기준이며,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상이
- 이 보험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및 해지환급금이 없음

3년만기 재가입특약 상품으로 매 만기 종료일 전까지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별도의 청약 절차없이 최대 90세까지 (7대질병 수술비는 80세까지) 연장가능하며 재가입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월보험료(1인당, 단위: 원)

기본계약			선택계약								
Active 보험료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7대질병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5~69세	6,270		30세	2,280	7,090	1,200	520	750	270	530	300
			40세	5,780	17,570	2,730	890	380	500	1,000	420
			50세	7,160	21,300	6,620	[illegible]	2,290	390	310	660

- 가입연령 15~65세 · 납입기간 전기납 · 보험료는 성별, 연령별로 상이
- 이 보험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및 해지환급금이 없음

3년 만기 재가입특약 상품으로 매 만기 종료일 전까지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별도의 청약절차 없이 최대 90세까지 일부 담보는 80세까지 보험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가입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정준호 "정계진출 한때 결심"

배우 정준호가 정계 진출설과 이혼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

27일 방송된 KBS2 '승승장구'에 출연한 그는 "정계 진출 제의를 서너번 정도 받았다"면서 "4·11 총선 때도 제의를 받았는데 사실 90%까지 (정계 진출을) 결정했었다. 그러나 (정치는) 잘하시는 분들이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털어놨다.

MBC 아나운서 출신 이하정과 결혼 직후부터 불거진 이혼설에 대해서는 "루머 등 안 좋은 일들이 생겼다. 재미있게 살고 있었는데 그런 말을 듣으니 이하정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까지 하려고 했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러나 이어 "점점 나약해지는 나를 이내가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누나처럼 의연하게 대처해줘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고 아내를 향한 애정을 과시했다.

/차현정기자 hjcha427@

<윤치 박치 음치>

참신한 소재·'3치'연기 빛났다

Film Review
/기혜훈 칼럼니스트 taishanedtrove.com

■ 음치클리닉

억지스러운 엔딩 아쉬워

연말이면 괜히 불안해지는 사람들이 많다. 바로 송년 모임에 빠질 수 없는 노래 때문이다. 적어도 싸이의 '강남스타일' 정도는 따라 부르고 '말춤' 정도는 출 수 있어야 할 텐데 하는 초조함이 급습해서다.

그런데 만일 그 모임에 첫사랑이 있다면 어떨까?

재탁에서 영화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음치클리닉'은 엄명영이 고교 동창생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게 된 음치녀 동주(박하선)가 속성 음치클리닉에 다니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룬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생들 사이엔 유학 갔다 돌아온 첫사랑이 있고 그 첫사랑을 노래 잘하는 절친에게 뺏길 위기에 처한다.

그 와중에 티격태격하던 음치클리닉 강사 신홍(윤상현)과의 미운 정도 쌓으소 피어나니 이 정도만 봐도 우리가 흔히 봐온 로맨틱 코미디의 관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걸 할 수 있다. 다만 음치녀가 주인공이라는 설정만이 특색이 있어 보이는데 박하선은 음치·박치·음치 연기를 제대로 소화한다. 더불어 술 취한 연기는 무척 사랑스럽다.

그러나 [illegible] 를 거리는 여기까지다. 윤상현의 노래 솜씨야 모두 아는 바고 박하선의 원맨쇼를 보는 재미도 중반 이후엔 바닥난다. 또 여주을 제외한 수강생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려주지만 가슴에 그리 와닿진 않는다. 무엇보다 억지스러운 엔딩 장면은 매우 아쉽다. 공연으로 마무리하는 것까진 소재의 특성상 이해가 가지만, 신홍에 [illegible] 를 계속 반복하는 장면은 지루하기만 하다. 이후에도 진부한 장면이 계속되는데 많이 고민한 결과치곤 지나치게 관습적이다.

음치녀의 사랑 찾기란 소재의 참신성이 지나치게 무난한 내용에 묻혀버린 로맨틱 코미디다. 12세 이상 관람가. 29일 개봉.

싸이 아시아 공략 '앞으로'

짧은 휴식 끝 태국 출국

극비리에 귀국했던 가수 싸이가 짧은 휴식을 끝내고 아시아 공략에 나섰다.

계속된 해외 일정으로 인한 피로로 향후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는 28일 오전 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계획된 일정을 강행했다.

오전 7시께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싸이는 "래지 생활이 많이 고되더라. 피로가 많이 쌓여 너무 힘들었는데 집에서 쉬고 애들도 보니까 많이 좋아졌다"며 "내 집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응원이 큰 힘이 된다. 가서 열심히 하고 계속해서 즐거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또 최근 유튜브 역대 최다 조회 기록을 세운 그는 "지금도 계속 늘고 있어 신기하고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순호기자

니콜과 이종석 구하라와 임시완

니콜 vs 구하라 '닭살애정' 대결

솔로곡 뮤비 2편 공개

카라의 니콜과 구하라가 각각 다른 남자 파트너와 짝을 이뤄 '닭살 애정' 대결을 벌였다.

솔로곡 모음집인 '솔로 컬렉션'을 발표하는 이들은 28일 카라 공식 유튜브 채널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뮤직비디오 두 편을 공개했다. 니콜과 구하라는 각각 '로스트'와 '시크릿 러브'를 불렀으며 훈남 배우들의 지원을 받았다. 니콜은 함께 음악 프로그램 MC로 활약한 이종석과, 구하라는 제국의아이들의 임시완과 호흡을 맞췄다.

니콜은 정통 R&B 장르인 '로스트'에서 헤어진 연인에 대한 미련과 그리움을 노래했다. 뮤직비디오에서 이종석과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나누고 다정한 눈빛을 주고받는 등 진짜 연인을 보는 듯한 커플 연기를 선보였다.

구하라는 미디엄 템포의 에반 댄스곡 '시크릿 러브'로 귀엽고 발랄한 매력을 표현했다. 뮤직비디오에 임시완을 짝사랑하는 귀여운 스토커로 등장하며 두 사람은 로맨틱한 프로포즈 장면과 커플 댄스 등으로 호흡을 맞췄다.

/유순호기자 suno@

오사마 빈 라덴 사살작전 생생히…

'코드네임 제로니모' 다음달 13일 개봉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의 전후 과정이 극장에서 밝혀진다.

다음달 13일 개봉될 '코드네임 제로니모'는 2010년 아카데미 작품상 등 6관왕을 휩쓴 '허트로커' 제작진이 실제 미국 중앙정보부(CIA) 특수작전부와 정보분석팀의 빈 라덴 추적 및 사살 기록을 스크린에 고스란히 옮긴 작품이다.

사살 작전의 출발부터 마지막까지가 상세히 그려지며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리얼 액션이 더해져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대통령과 정부 요원, 국방부, CIA가 작전에 다선 팀원들의 상황을 지켜보며 작전을 지시하는 장면이 삽입돼 극적 긴장감을 높인다. 또 저신에 성공한 버락 오 [illegible] 대통령이 빈 라덴 사살 직후 기자회견에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테러리스트이자 살인범이 사살됐다"고 말하는 모습이 담겨 논란을 예고한다.

국내 수입사인 불경소리 측은 "지난달 5일부터 18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관객 10명 가운데 4명이 빈 라덴의 죽음을 믿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베일에 가린 빈 라덴 사살 작전의 전모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400만병 다 달라요"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프리미엄 보드카 앱솔루트가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리미티드 에디션 '앱솔루트 유니크'를 선보이고 있다. 전 세계 400만 병 한정으로 생산된 처음으로, 병 하나하나의 디자인을 모두 다르게 제작해 고유 시리얼 넘버를 새겨 넣어 특별한 가치를 살렸다.

GS샵 기부방송 '훈훈'

GS샵이 30일 오후 3시15분부터 30분간 기부 방송을 통해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모자 뜨기 스페셜 패키지'(3만3000원)를 판매한다.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 캠페인은 저체온증으로 힘들어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의 영유아를 살리기 위해 털모자를 만들어 보내는 세이브더칠드런의 글로벌 구호 캠페인이다.

GS샵과 세이브더칠드런은 6년째 이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GS샵은 '모자 뜨기 키트'의 제작 발송 비용을 후원하고 판매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고 있다.

속 든든한 '우유차' 마셔볼까

진한 아메리카노보다 담백한 카페라테를 찾게 되는 겨울이다. 고소한 우유를 섞은 카페라테를 마시다 보면 속까지 든든해지는 걸 느낀다. 전문가들은 겨울에 마시는 우유가 특히 몸에 좋다고 말한다.

한국식품정보원 진현석 박사는 "우유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해 야외활동을 통해 비타민 D 섭취가 어려운 겨울철에 꾸준히 마시면 좋다"며 "우유에 들어있는 젖산 성분이 뭉친 근육을 녹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우유는 다른 식재료들과도 잘 어울려 맛과 건강에 좋은 '우유차'를 만들 수 있다. /한효숙 기자

◆생강 우유차=추운 날 마시면 땀이 나고 체온이 오르는 보온 효과가 있다.

*재료=생강 굵은 것 1뿌리, 작은 우유팩 1개, 홍차 2찻술, 물 1/4컵, 설탕 1큰술

*만들기 ① 껍질 벗긴 생강을 얇게 저민 다음 물을 부은 냄비에 생강 향이 우러나도록 살짝 끓인다.

② 끓인 생강 물에 우유와 홍차를 넣고 우유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설탕을 넣는다. 찻잎은 체에 걸러 마신다.

◆시나몬 밀크티=살균 작용을 하는 카테킨 성분이 든 홍차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시나몬, 면역력에 좋은 우유를 섞은 시나몬 밀크티로 감기 뚝!

*재료=물 150~200ml, 우유 150~200ml, 찻잎 6g, 설탕 5~10g, 계피가루 적당량

*만들기 ① 밀크팬에 물을 부어 끓으면 약불로 줄인 다음 찻잎을 넣고 저어준다.

② 5분 정도 우린 다음 우유와 계피가루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농도를 맞춘다. 우유를 너무 오래 끓이면 비린 맛이 나니 끓기 직전에 불에서 내린다.

③ 찻잔에 담은 후 설탕으로 당도를 조절한다.

미타 '애비에이터' 출시

동양 패션부문에서 론칭한 잡화브랜드 미타가 배우 이승연과 콜래보레이션을 진행, 밀리터리 트렌드와 가장 잘 어울리는 '애비에이터' 라인을 출시하고 스트랩 버클로 장식한 천연 양모 부츠를 오늘(29일) 현대홈쇼핑에서 오후 10시45분부터 70분간 판매한다.

나로호 성공하면 제니스웰 화장품 반값

현애은 분말로 안티까울을 시고 있는 나로호 3차 발사의 성공을 기원하는 이벤트가 등장했다.

신선화장품 제니스웰은 오늘(29일)로 예정된 나로호의 3차 발사가 무사히 진행되고 나로호가 정상 궤도 진입에 성공할 경우 제니스웰 전 품목을 50% 할인 판매한다. 제니스웰이 2006년 론칭된 이후 처음 열리는 할인 행사다.

이번 행사는 발사와 궤도 진입 성공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또 29일부터 발사 성공이 확인되는 30일까지 제니스웰 트위터(@ZENISWELL)에서 응원 댓글 이벤트를 열고 선물을 준다. 문의 080-333-0279

지구촌 미래경영 '열린 리더' 키운다

이론·실무 융합교육으로 글로벌 리더 양성 경희사이버대 글로벌경영학과

지구촌 사회가 되면서 국제 경쟁력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는 능동적인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학과 인력 네트워크 강화 ▲맞춤형 교육 ▲지기역량 개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분야별 목표에 맞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경영 이론과 실무의 융합을 꾀하는 커리큘럼 속에서 학생들은 국제 감각을 지닌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자질을 쌓아간다.

◆ 글로벌 리더 위한 각종 제도 풍성

국제 리더 양성을 위해 글로벌경영학과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학원 진학 지도와 취업 및 이직에 대비한 특강, 신학 연계 과정 운영을 통한 맞춤형 교육이다. 이는 경영 기획 및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등 각종 활동과 경인 대회를 통해 경영학 이론과 실무를 접합하는 경험의 장을 제공한다.

신봉섭 학과장은 "현재 글로벌 리더십, 어성 능력 개발강화, 프레젠테이션 스킬 강화 등을 포함한 자기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며 "자격증 취득 지원 제도를 만들어 학생들의 전문성 인증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문회 활성화와 동문 장학금 육성, 재학생 활동 역량 강화를 토대로 학과 인적 네트워크를 탄탄히 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열린 경영학 지향하는 글로벌경영학과

경영학에 경제학, 심리학, 국제학 등의 여러 학문과 연관이 있는 만큼 경희사이버대 글로벌경영학과는 '열린 경영학'을 지향한다.

신 학과장은 "화두가 되고 있는 미래 경영은 지구촌의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 방안까지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우리는 보다 넓은 시야와 안목으로 접근하는 융복합적인 사고를 훈련한다"고 말했다.

또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학생들의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해 각종 기업 연구 프로젝트 사례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학과의 아낌없는 지원과 혜택 속에서 글로벌경영학과는 끈끈한 유대를 자랑한다. 재학생과 졸업생은 서로의 멘토-멘티 역할을 자처하여 함께하는 학과 문화를 정착시킨다.

우수한 교수진 확보도 글로벌경영학과 경쟁력의 한 축이다.

연구소 출신의 실제 경제 전문가부터 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CEO에 이르기까지 이론뿐 아니라 실무 경험까지 고루 갖춘 교수진은 학생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신 학과장은 "대부분의 재학생들이 사회 생활을 하던 중 이론 공부에 대한 목마름으로 입학한다"면서 "경영 지식과 현장 경험을 고루 갖춘 교수진을 바탕으로 이론이 어떻게 실무에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경희사이버대학교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013학년도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정보문화예술 ▲사회과학 ▲국제지역 ▲경영 ▲호텔관광외식 등 5개 학부 19개 학과에 지원 가능하며, 대학원은 현재 모집 중으로 내달 12일까지 지원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학부(02)959-0000, 홈페이지 www.khcu.ac.kr/ipsi, 대학원(02)3299-8808, 홈페이지 grad.khcu.ac.kr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제·심리·국제학 '크로스오버' 통해 열린 경영학 지향
지식·경험 겸비한 교수진에 끈끈한 동문간 유대 '자랑'

■ 글로벌경영학과 특성화 프로그램

해마다 해외기업 탐방 선진 경영노하우 익혀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각 학과의 특색을 살린 학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 글로벌경영학과의 경우 해마다 해외 현지 기업을 직접 탐방한다.

글로벌경영학과 학생들은 지난 9월부터 11일까지 2박3일 동안 일본 오사카의 산토리 주류공장과 오사카대학 등을 살펴보며 선진 시장에 대한 식견을 넓히고 일본 문화 체험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에는 중국의 경제 중심지 상하이에 3박 4일간 머물며 신국제무역전시장과 쑤저우공업원구 등을 방문해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의 발전상을 직접 체험했다.

학과 관계자는 "해외 기업 탐방이 단순한 견학에 그치지 않도록 해외 진출 경영 전략에 대한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또 "우리 학과 특성화 프로그램은 글로벌기업의 경영 현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국제 경영인으로서의 영감을 얻는 기회"라면서 "학생들의 현지 사업 진출 및 취업에 대한 발판이 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50대 청춘, 학생회장, 동문회장 맡은 노익장 동문들

오프라인 모임 많아 인맥 탄탄

국립 전남대병원에서 행정관리를 총괄하는 박용기(54)씨는 50대에 접어든 2008년 경희사이버대 글로벌경영학과에 입학했다. 올해 학생회장을 맡을 정도로 학과 생활에 열성인 그는 누구보다 '지천명'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다.

08학번 박용기씨

- 경희사이버대에 입학한 까닭은

▲ 요즘 트렌드인 글로벌 경영에 대해 이론과 실제를 공부하려던 중 경희사이버대를 접하게 됐습니다. 장소와 시간 제한 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고, 자격 학습권도 있다는 점을 알고 관비로 원서를 썼습니다. 50대도 아직 청춘이라 생각했지요.

- 학교 생활을 하며 얻은 것이 있다면

▲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사이버대이지만 각종 오프라인 모임이 활발해서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젊음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경희사이버대를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합니까

▲ 그럼요! 자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인 걸요. 프랑스의 계몽 사상가 루소는 "식물은 재배에 의해서 성장하고,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 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말고 일단 문을 두드리세요!

만학으로 석사의 꿈까지 이뤄

10대 시절 가정형편상 대학에 가지 못했던 장현진(54)씨는 경희사이버대 04학번으로 못다한 꿈을 이뤘다. 학사와 석사 학위까지 성취한 장씨는 현재 경희사이버대 글로벌경영학과 동문회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04학번 장현진씨

-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 가정 여건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점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침 경희사이버대를 알게 되었고 국내 최고의 사이버대학교란 타이틀과 명문 사학 경희대학교와 연계된 점에 끌렸습니다. 경희사이버대에서 경희대 경영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지식과 자격을 얻어 석사의 꿈까지 달성해 매우 만족합니다.

- 사회 생활과 학업 병행이 힘들었을 텐데요.

▲ 학과에서 배운 경영 이론을 회사 경영에 접목할 수 있고, 반대로 실무 경험을 공부에 적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힘든 순간이 와도 학습이 기쁨과 동문 모임 등으로 활력을 충전했습니다.

- 경희사이버대를 다니면서 느낀 점은

▲ 온라인 교육 특징인 반복 수강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차례 수강하면서 온전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답니다. 늦은 나이에 공부할 수 있는 점도 좋았습니다. 온라인 강의와 함께 오프라인 인적 교류는 경희사이버대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 개설학과 및 대학원 개설전공

모집단위(학부)	학과
정보문화예술학부	미디어문예창작학과
	미디어콘텐츠디자인학과 (구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디지털미디어공학과 (구 정보통신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사회과학부	NGO학과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공공서비스경영학과 (구 행정학과)
국제지역학부	일본학과
	중국학과
	미국학과
	한국어문화학과
경영학부	e-비즈니스학과
	자산관리학과
	글로벌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호텔관광외식학부	호텔경영학과
	관광레저경영학과
	외식농산업경영학과 (구 외식농산업경영학과)
대학원	전공
호텔관광대학원	호텔외식MBA 전공
	관광레저항공경영 전공
문화창조대학원	미디어문예창작 전공
	글로벌한국학 전공

선수협 "WBC 보이콧" 으름장

10구단 창단 논의 없어 단체행동…KBO 골든글러브 후보 발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10구단 창단을 위해 단체행동에 나섰다.

선수협은 28일 "한국시리즈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나도록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구단들은 10구단 창단을 결정하기는커녕 엔네 이사회 소집마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우려하며 "10구단 창단이 더 미루어져서는 안 되기에 선수들의 단체행동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10구단 창단을 촉구하기 위해 골든글러브 시상식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등 향후 있을 모든 일정에 불참하겠다. 정당한 선수들의 단체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프로야구선수노동조합 설립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선수협은 지난 6월 KBO 이사회가 10구단 창단 유보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올스타전을 보이콧하기로 결의했었다. 그러나 KBO가 한국시리즈가 끝난 후 이사회를 소집해 10구단 창단 방안을 재논의하겠다고 약속하자 올스타전에 출전했었다.

한편 KBO는 이날 2012 골든글러브 수상자 후보 38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투수 부문에서는 장원삼(삼성), 오승환(삼성), 브라이언 탈보트(삼성), 박희수(SK), 브랜든 나이트(넥센), 류현진(한화) 등 개인 타이틀 1위 선수와 스캇 프록터(두산)가 가세해 7명이 후보로 등록됐다.

박충식 선수협 사무총장

올해 타격 3관왕(홈런·타점·장타율)이자 시즌 MVP인 박병호는 김태균·박정권·박종윤과 함께 1루수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포수는 진갑용·양의지·강민호가 경쟁하고, 2루수는 올해 신인선수상 수상자인 서건창을 포함해 정근우·안치홍 등 5명으로 압축됐다. 3루수는 박석민·최정·황재균, 정성훈, 유격수는 김상수·김선빈·강정호·이대수가 경쟁한다.

외야수는 박한이·김강민·김현수·손아섭·이용규·김원섭·김주찬·박용택·이병규 등 9명의 선수가 후보로 올랐고, 지명타자는 이승엽·홍성흔·이진영·이호준이 도전장을 던졌다. 시상식은 다음달 11일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김민준기자 minn@metroseoul.co.kr

박지성이 25일 열린 2012~2013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전에서 부상 공백을 털고 6경기 만에 교체로 그라운드에 나서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다. /AFP 연합뉴스

박지성 부상 털고 일어났다

6경기 만에 선덜랜드전 교체 출격…QPR 조직력 업 무승부

퀸스파크 레인저스(이하 QPR)의 '캡틴' 박지성(31)이 부상 공백을 깨고 6경기 만에 그라운드에 돌아왔다.

박지성은 25일 열린 2012~2013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선덜랜드와의 원정경기에서 후반 20분 삼바 디아키테의 교체 투입돼 추가시간까지 30분을 뛰었다. 지난달 22일 에버턴전에서 무릎 부상을 당한 이후 6경기 만이다.

레드냅 감독의 데뷔전이기도 한 이날 QPR은 전과는 다른 짜임새 있는 경기를 했다. 초반부터 측면 침투를 활용해 즐기차게 공세를 펼쳤고, 유기적인 패스를 이용한 플레이로 조직력이 한결 강해진 모습을 선보였다. 오랜만에 경기에 나선 박지성은 중앙 미드필더로 좌우측면을 오가며 경기 감각을 살리는 데 집중했다.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고, 양팀은 득점 없이 비겼다.

최근 임대설이 제기된 선덜랜드의 지동원은 출전선수 명단에서 제외됐다. 한편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리그) 카디프시티의 김보경은 더비카운티와의 원정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1-1 무승부에 힘을 보탰다.

/김민준기자

한국 남성 골퍼 평균 90.9타

51%가 40대 자영업자

한국 남성 골퍼의 표준 모델은 40대 자영업자로 평균 구력 9.4년에 90.9타를 치는 사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 골프다이제스트와 스카이72 골프장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인천 스카이72 골프장을 이용한 129만1204명의 나이와 직업, 골프 스타일과 비거리, 점수 시유비는 골프용품 등을 조사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6년간 내장객 가운데 93.4%인 120만5071명이 남자였고 나이로 따지면 40대가 66만28명으로 총 조사 대상자의 51.3%를 차지했다. 50대가 27만781명(20.9%), 30대가 25만4132명(19.8%)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직업은 자영업자가 18.4%로 가장 많았고 직종으로 분류하면 건설 분야가 9.5%로 최다를 기록했다. 제조업 7.7%, 금융 6%, 유통 및 무역 5.1% 순이었다.

남성 내장객은 구력 9.4년에 90.9타를 치는 보기 플레이어가 평균을 기록했고 여성 내장객은 평균 구력 7.7년에 점수는 94.8타였다.

/정효준기자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크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12 Do you speak English? 언어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샘플입니다.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171. 그의 모국어는 무엇인가요?
172. 그의 모국어는 프랑스어예요.
173. 당신은 몇 개 국어를 하세요?
174. 제 친구는 한국어를 읽고 써요.
175. 그는 한국어식 억양으로 영어를 말해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171. What's his native language?
172. His native language is French.
173. How many languages do you speak?
174. My friend reads and writes Korean.
175. He speaks English with a Korean accent.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171~175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몇 개 언어를 do you speak?[173]
B I only speak Korean and English.

정답 How many languages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What's [your friend's / Helen's] native language? Is it Japanese?
2. My friend [Matthew Smith / Harry Jones] reads and writes [Korean / Chinese].

TOEIC Reading ▶ ETS TOEIC Reading Prep Book

01 The blueprint for the Siraga Hotel includes 200 guest rooms, a restaurant, and an ______ parking area.

(A) enclosed (B) opposite
(C) absent (D) innocent

02 The ______ of the new ambassador to Portugal was confirmed by the committee on Monday.

(A) appoint (B) appoints
(C) appointed (D) appointment

01. [illegible]
해설 [illegible] enclosed [illegible]
어휘 blueprint 설계도 guest room 객실 opposite 맞은편의 innocent 무죄인
정답 (A) enclosed

02. [illegible]
해설 [illegible] (D) appointment를 써야 한다.
어휘 ambassador 대사 confirm 확정하다 committee 위원회 appoint 임명하다 appointment 임명
정답 (D) appointment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4.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여 질문에 답하기

• 일반 의문문

Q1. Are there any opportunities to socialize with the lecturers?
[illegible]
A Yes, we will have a casual conversation after each lecture.
[illegible]

Q2 Can I leave my children at the play area while I take the class?
[illegible]
A I'm afraid not. You need to be with your children at the play area.
[illegible]

• 확인 의문문

Q1. I heard Mary Jung would give a lecture on business plans. Is this correct?
[illegible]
A Actually, no. Mary Jung will give the opening speech at 10 A.M.
[illegible]

Q1. I think I'm having dinner with clients on Aug. 7 at 6 o'clock. Am I right?
[illegible]
A Yes, you are supposed to have dinner with your clients at Park Grill on Aug. 7 at 6.
[illegible]

본 지면은 YBM의 컨텐츠로 구성됩니다. ybmBooks.com 02)2000-0515

www.canon-ci.co.kr
Canon
보이지 않는 괴력 | 보이는 매력
Beast & Beauty
Canon
S110
Canon
S110
아름다운 외모에 숨겨진 무서운 성능으로 사진의 퀄리티를 높이다
PowerShot S110